

## 브라질 에탄올 산업, 금융위기로 저성장 예상

- 최근 브라질 농업연구소 Datagro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에탄올 생산 투자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브라질 에탄올 산업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가 발표
  - 올 하반기 사탕수수 수확 시기에 맞춰 착수 예정이던 에탄올 생산 프로젝트 35건 중 4건은 시작 전에 이미 취소됐으며, 9월 말 기준 약 2/3 정도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
  - 나머지 프로젝트도 금융위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 Datagro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바이오 연료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브라질 에탄올 생산투자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용경색이 심각해지면서 투자를 취소하거나 잠정 보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브라질 알코올 산업은 약 2년 전부터 설탕 및 알코올 가격이 하락해 수익은 커녕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등 심각한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용경색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어 더욱 어려운 상태
- 그러나 Datagro의 분석과 같이 브라질 알코올 산업은 당분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일부 외국업체들은 향후 플렉스 차량의 세계적 증가와 이에 따른 에탄올 수요 증가에 대비해 현재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에탄올 생산 시설 투자를 중단하지 않을 전망
  - 사탕수수 산업 연합(UNICA)은 2015년까지 브라질 내수시장 에탄올 소비량은 현재 2배로 늘어나게 되며, 수출은 현재의 약 3배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현재 에탄올 내수 소비량은 189억 ℓ 이며, 수출량은 36억 ℓ 이고, 2015년에는 내수 소비량 346억 ℓ, 수출량은 123억 ℓ 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2015년이 되면 브라질 전체 운행 차량 중 50% 이상이 플렉스 차량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에탄올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상파울루 사무소 제공>